

Save the earth

지구를 살리자

The fragrant earth comes to life again with microorganisms that will provide nutrients for plants.

numbers
vol. 259

교회학교 기후환경 인식과 행동

목회자/교사, 교회학교의 기후위기 교육 '꼭 해야한다' 73%!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2023 사망원인통계
- ② 디지털 기술(AI 등)에 관한 OECD 10개국 시민들의 인식

[넘버즈 칼럼]

기후위기 앞에 선 그리스도인

2024. 10. 15.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목회자/교사, 교회학교의 기후위기 교육 ‘꼭 해야한다’ 73%!

올여름 한국인들이 경험한 폭염은 기후변화를 우리 삶 속에서 아주 가깝게 체감한 대표적 일례일 것이다. 단순한 기온 상승을 넘어 폭염, 가뭄, 홍수, 폭설 등의 이상기후가 매해 세력을 확장하고 있기에 기후위기는 더이상 국가, 국민들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처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변화에 관해 목회자, 교사,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최근 목회자/교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회학교 기후환경 교육을 위한 조사’를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과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회학교 목회자의 97%, 학생 89%인 대다수가 기후위기를 직접 체감하고 있었고, 목회자/교사의 73%가 교회학교에서 기후위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번 <넘버즈 259호>는 목회자/교사, 학생들의 기후위기 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한편 교회와 교회학교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기후환경 교육을 위한 조사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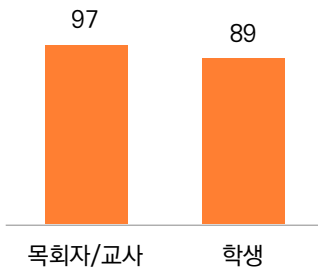
구분	목회자/교사	학생
조사 대상	전국의 교회학교를 담당하는 목회자/교사	전국의 교회에 출석하는 중고등학생
조사 방법	교회를 통한 온·오프라인 조사 병행	
표본 규모	총 483명 (유효 표본)	총 569명 (유효 표본)
표본 추출	편의추출	
조사 기간	2024년 4월 17일 ~ 6월 12일(총 57일)	
조사 의뢰 기관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01

[기후위기 이해 및 심각성 인지] 목회자/교사, 학생의 대다수 '기후변화' 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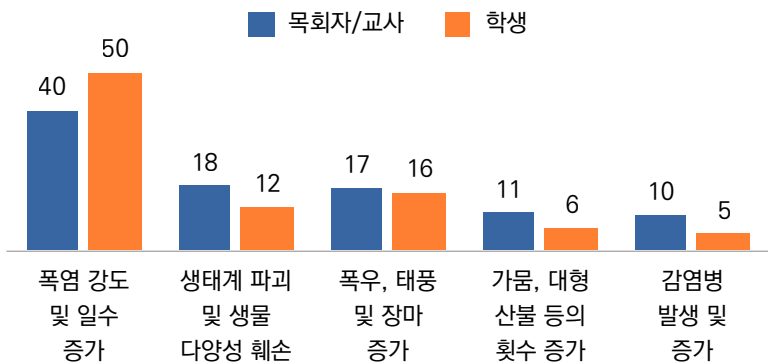
- 기후변화를 얼마나 체감하는지를 묻은 결과, 목회자/교사(97%)와 학생(89%)의 대다수가 체감하고 있었고, 학생 보다는 목회자/교사의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 어떤 상황에서 기후변화/위기를 체감하는지를 물었더니 '폭염 강도 및 일수 증가'를 가장 높게 꼽았다. 올해 초가을 까지 이어진 폭염 등 이상 기후를 떠올리게 하는 데이터이다.

[그림] 기후변화 체감도 ('매우+약간 체감함'*, %)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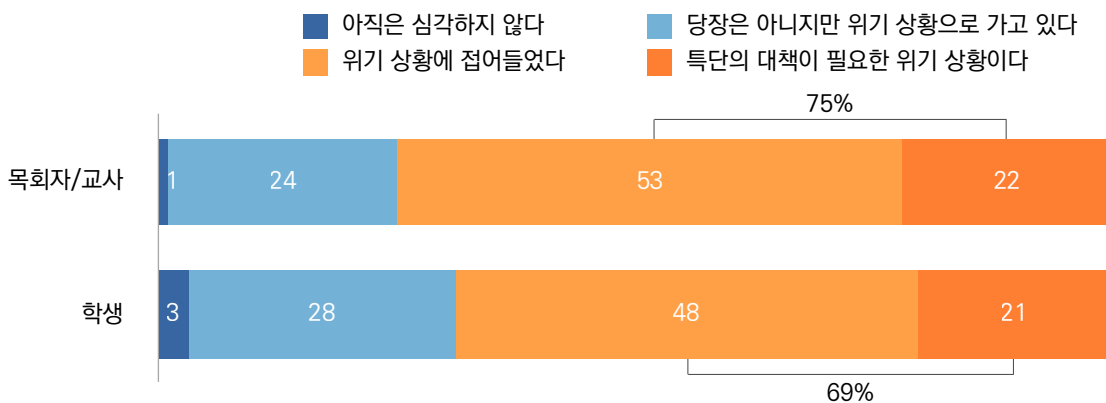
[그림] 기후변화/위기 체감하는 상황 (상위 5위, %)



목회자/교사, 학생의 1/5가량만 '특단의 대책 필요한 위기상황'이라 인식!

- 앞서 기후변화에 대한 목회자/교사, 학생들의 체감도가 높았는데 실제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여러 사례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세계 곳곳의 폭염과 홍수 피해, 많은 생물종의 멸종 위기, 많은 지역에서의 질병 유발과 미래 식량 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제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이라고 일컬어지는 현실이다.
- 그렇다면 목회자/교사, 학생들의 기후위기 심각성 인식은 어떨까? 위기상황이라는 인식은 목회자/교사, 학생이 각각 75%, 69%로 높은 편이었으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위기 상황'이란 절박성은 전체의 1/5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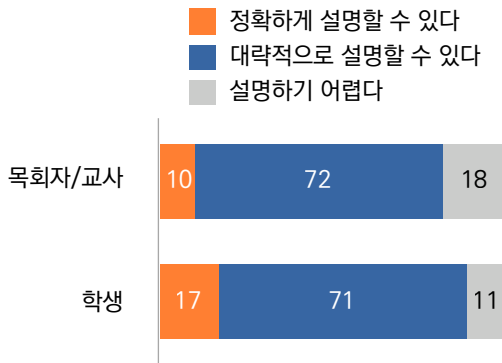
[그림]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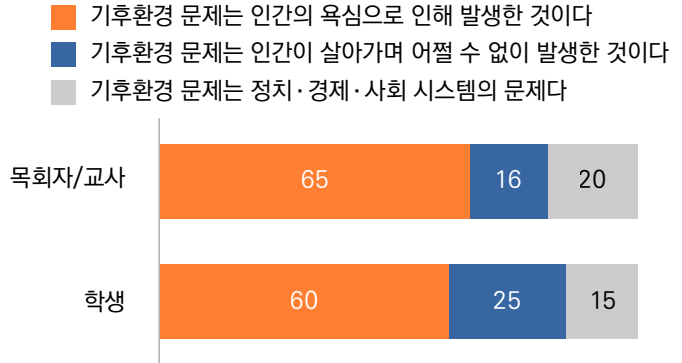
‘기후위기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10%대에 불과!

- 기후변화/위기에 대해 목회자/교사, 학생들의 대다수가 설명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나, 실제로 정확한 설명이 가능한 비율은 10%대에 불과했다. 기후위기에 대해 기본적인 소양은 갖고 있으나,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설명 능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인식의 부족은 적극적 행동으로 실천하는 데에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기후위기의 원인으로는 전체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견해를 꼽아 기후위기가 자연적 현상이기보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기후변화/위기에 대한 설명 가능 여부 (%)



[그림] 기후위기의 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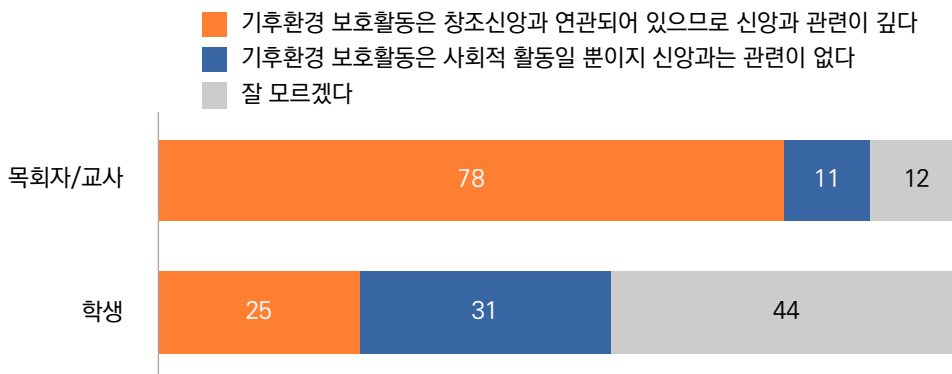
02

[기후위기와 신앙 인식]

학생 75%, ‘기후환경 보호활동과 신앙은 별개의 영역!’

- 기후위기 보호 활동과 신앙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목회자/교사는 ‘신앙과 관련 깊다’는 인식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학생들의 인식은 ‘신앙과 관련 깊다’ 25%, ‘신앙과 관련 없다’ 31%, ‘잘 모르겠다’ 44%로 유보적 입장을 포함한 상당수(75%)는 기후환경 보호활동과 신앙을 별개의 영역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기후환경 보호활동을 창조세계 보전 등 신앙적 실천 형태로 인식하도록 돕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기후위기 보호 활동과 신앙과의 관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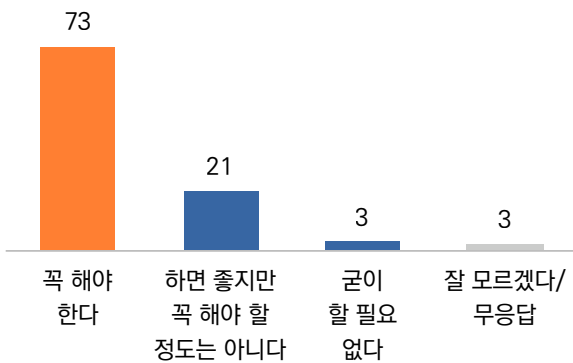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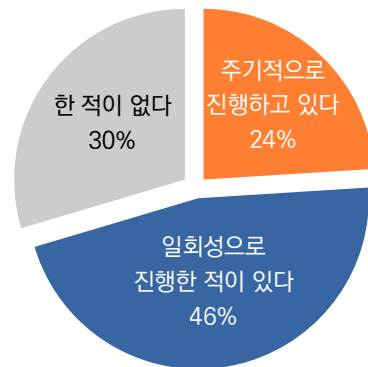
[교회에서의 기후위기 교육/운동 실천] 목회자/교사, 교회학교의 기후위기 교육 '꼭 해야 한다' 73%

- 교회학교의 기후위기 교육 필요성을 묻은 결과, 목회자/교사 10명 중 7명 이상(73%)은 '꼭 해야 한다'고 응답해 교회학교에서 기후위기 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러나 최근 1년간 설교나 공과공부를 제외한 기후위기 교육 실시 여부를 사역자(목사,전도사)에게 물었을 때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비율은 24%에 불과했고, 나머지 4명 중 3명(76%)은 '일회성으로 진행(46%)'하거나 '한 적이 없다(30%)'고 응답한 경우였다.

[그림] 교회학교의 기후위기 교육 필요 여부 (목회자/교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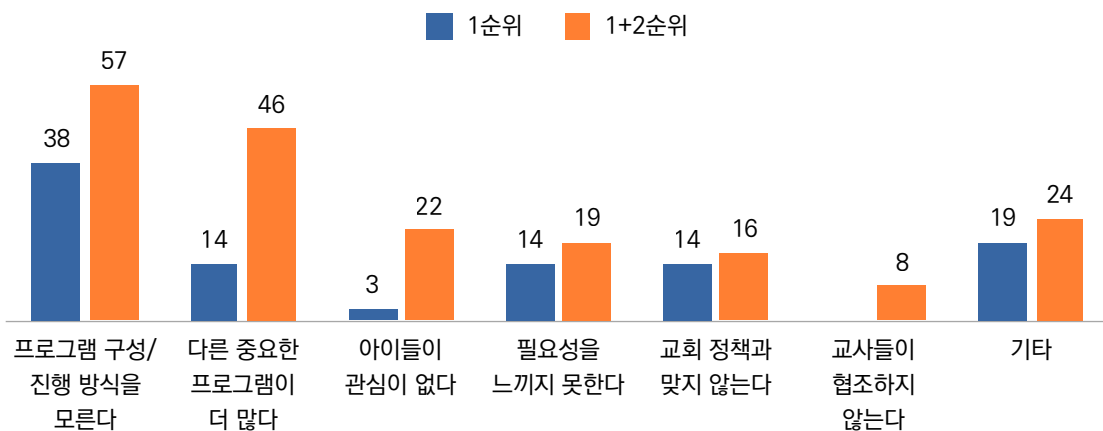
[그림] 최근 1년간 설교나 공과공부를 제외한 기후위기 교육/실천 운동 실시 여부 (목사/전도사, %)



교회학교에서 기후위기 교육 하지 않는 이유, '프로그램 구성/진행 방식 모른다'

- 기후위기 교육 실천 경험이 없는 목사/전도사를 대상으로 교회학교에서 기후위기 교육/실천 안 하는 이유(1+2순위)를 물어본 결과, '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 방식 모름(57%)'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 이어 '다른 중요한 프로그램이 더 많음(46%)', '학생들의 관심이 없음(22%)' 등의 순이었다.
- 기후위기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앞서 목회자/교사 73%가 동의)은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실행까지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동기부여가 안 되는 등 많은 장애 요인이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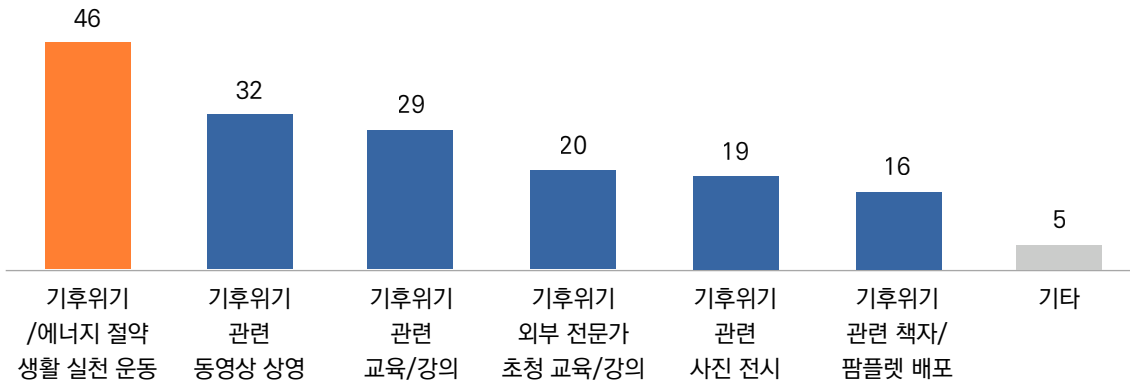
[그림] 교회학교에서 기후위기 교육/실천운동 실시하지 않은 이유 (최근 1년간 교회학교에서 기후위기 관련 교육/실천 운동 실시하지 않은 목사/전도사, %)



교회학교 기후위기 교육, '원인/의미 찾는 교육'보다 '절약 실천 운동' 위주!

- 최근 1년간 교회학교에서 실시한 기후위기 교육/실천 운동을 경험한 적 있는 학생에게 그 종류를 물은 결과, '기후 위기/에너지 절약 생활 실천 운동'이 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 '기후위기 관련 동영상 상영' 32%, '기후위기 관련 교육/강의' 29% 등의 순이었다.
- 교회학교에서 실시한 기후위기 교육이 기후위기의 원인, 의미를 찾는 교육보다는 '실천'만을 강조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기후위기 측면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습관적인 절약 실천만을 행하게 되는 셈이다.

[그림] 최근 1년간 실시했던 기후위기 교육/실천 운동 종류
(최근 1년간 교회학교에서 기후위기 관련 교육/실천 운동 경험한 학생,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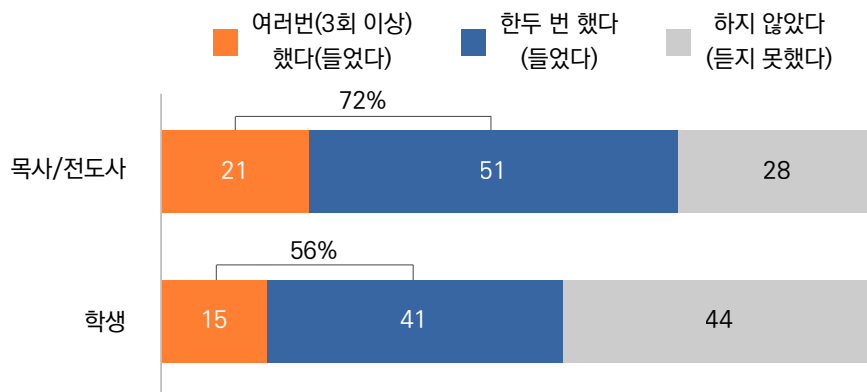


04

[기후위기 관련 수업/설교/공과공부 등의 영향력] 기후위기 관련 설교, 학생들에게 임팩트 부족!

- 목사/전도사를 대상으로 최근 1년간 담당하고 있는 교회학교 부서에서 기후위기 관련 설교를 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한두 번' 또는 '여러 번' 설교했다는 사역자가 72%였는데 이와 동일한 질문(설교 들었던 경험)을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했더니 기후위기 관련 설교를 들었다는 응답자가 56%로 사역자와 학생 간 기후위기 관련 설교 경험 인식 차가 컸다. 관련 설교를 해도 기억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설교에서 그만큼의 임팩트가 적다는 것을 방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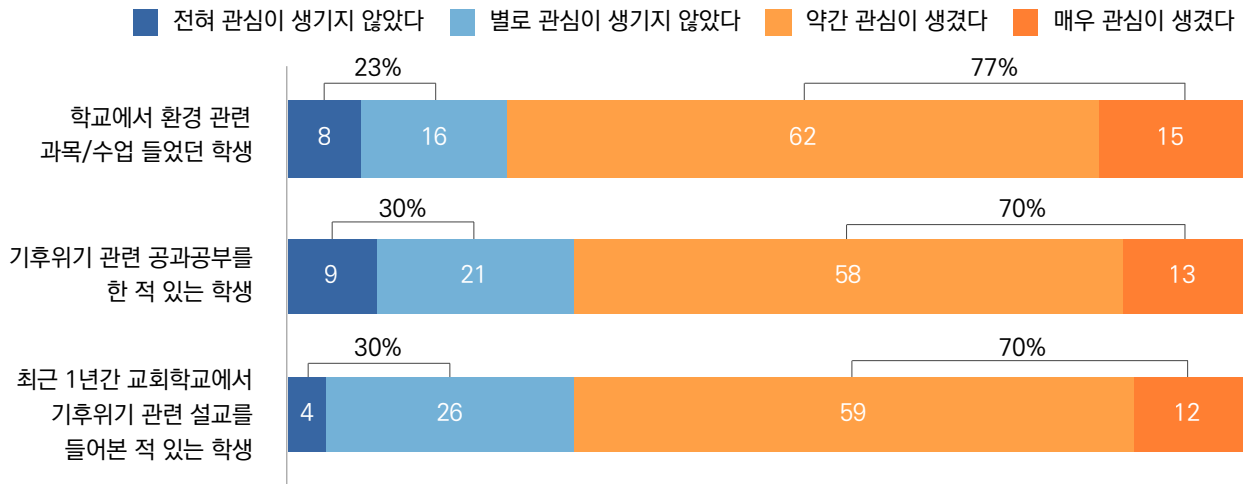
[그림] 교회학교에서 기후위기 관련 '설교한 경험/설교 들었던 경험' (최근 1년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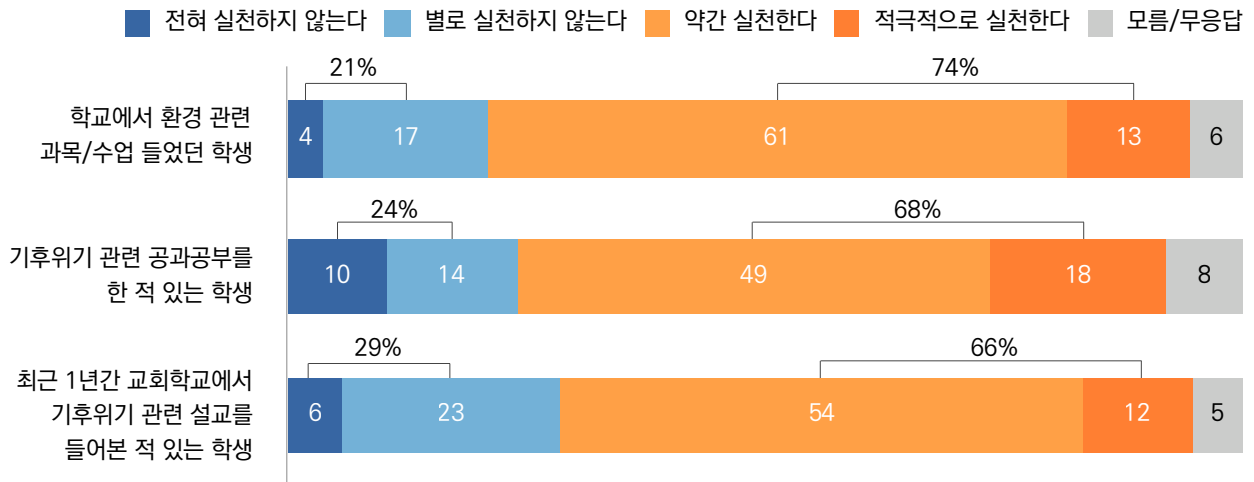
기후행동 관심/실천에 영향 정도, 학교 수업 > 공과공부 > 설교 순!

- 기후위기 관련 수업/공과공부/설교 경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당 수업/공과공부/설교 후 환경에 어느 정도 관심이 생겼는지를 각각 묻은 결과, '학교에서 환경 관련 과목/수업'을 들은 경우 '관심이 생겼다' 비율이 77%로 가장 높았고, '공과공부'와 '설교' 경험자의 관심도는 각각 70% 수준이었다.
- 이번에는 수업/공과공부/설교 후 기후위기 대응 실천 정도를 확인했더니 이 역시 '학교 과목/수업(74%)'을 경험한 자가 '공과공부(68%)'나 '설교(66%)' 경험자 대비 실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기후위기 관련 0000 후 환경에 대한 관심 정도 (환경 관련 학교 수업/공과공부/설교 경험 학생, %)



[그림] 기후위기 관련 0000 후 기후환경 대응 행동 실천 정도 (환경 관련 학교 수업/공과공부/설교 경험 학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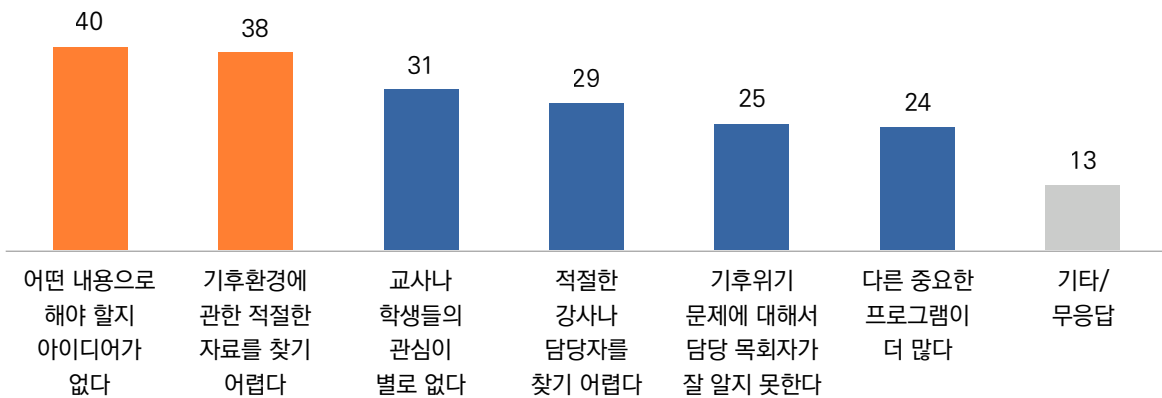


05

[기후위기 교육/실천 시 장애요인과 촉진요인] 교회학교 기후위기 교육시 애로사항, '아이디어·적절한자료' 찾기 어렵다

- 교회학교에서 기후위기 관련 교육이나 실천 운동을 하려고 할 때 목회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일까?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할지 아이디어가 없다(40%)'와 '기후환경에 관한 적절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38%)'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즉 내용 구성의 문제가 힘들다는 지적이다.
- 이에 따라 각 교회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후위기 교육을 위한 체계적, 실용적인 지도안의 보급 등이 시급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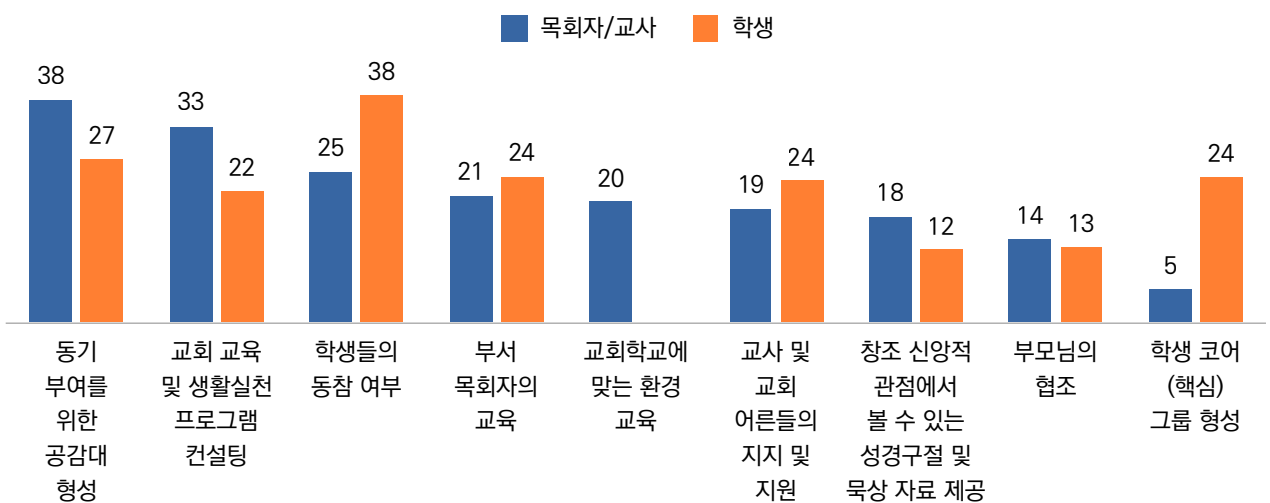
[그림] 교회학교에서 기후위기 교육/실천 운동 진행 시 애로사항 (목사/전도사, 1+2순위, %)



교회학교 기후위기 교육에 필요한 것, 목회자: 동기부여를 위한 공감대 형성, 학생: 친구들의 동참

- 교회학교의 기후위기 교육/실천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교사의 경우 '동기 부여를 위한 공감대 형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다.
- 한편, 학생들은 '학생들의 동참 여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다. 청소년기의 특성상 학생들은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행동 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교회학교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실천 운동 시작할 때 필요한 것 (1+2순위, 상위 9위, %)



이번호 요약

1. 목회자/교사, 학생의 대다수 '기후변화' 체감!

- 목회자, 교사, 학생들에게 기후변화를 얼마나 체감하는지 묻은 결과, 목회자/교사(97%)와 학생(89%)의 대다수가 체감하고 있었고, 기후변화를 체감하는 상황으로는 두 그룹 모두 '폭염 강도 및 일수 증가'를 가장 높게 꼽았다.

2. 목회자/교사, 교회학교의 기후위기 교육 '꼭 해야 한다' 73%!

- 이번에는 교회학교의 기후위기 교육 필요성을 물었다. 목회자/교사 10명 중 7명 이상(73%)이 '꼭 해야 한다'고 응답해 교회학교에서 기후위기 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3. 학생 75%, '기후환경 보호활동과 신앙은 별개의 영역'!

- 기후위기 보호 활동과 신앙과의 관계 인식을 살펴본 결과, 목회자/교사는 '신앙과 관련 깊다'는 인식이 압도적인 반면 학생들은 '신앙과 관련 깊다'는 25%에 그쳤고, 유보적 입장을 포함한 상당수(75%: 관련 없다 31%, 잘 모르겠다 44%)는 기후환경 보호활동과 신앙을 별개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칼럼] 기후팬데믹, 아시아는 지금 정말 안녕한가 (정수종 교수, 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
- ▶ [칼럼] 기후위기사대 삶으로 드리는 예배 (임지희 활동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관련 성경 구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와의 것이로다 (시편24:1)

목회 적용점

역대급 폭염과 폭우, 가뭄, 산불 등 이상 기후 현상이 더 강렬하게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런 급격한 기후위기/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펴낸 제5차 평가보고서(2014)에서는 인간의 경제활동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인자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며, '거의 확실'하다는 표현은 확률 95% 이상을 의미한다고 적시했다.*

사실상 경제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 모두가 기후위기의 가해자인 셈이다. 그렇다면 기후위기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유엔환경계획(UNEP) 누리집(2021)에 실린 '기후위기와 싸우는 것을 도울 수 있는 10가지 방법'에 따르면 '기후위기 이야기 퍼뜨리기' '정치에 대해 압박하기' '교통수단 바꾸기' '전력 사용 줄이기' '식단 조정하기' '지역의 지속가능한 상품 사기' '음식 낭비하지 않기' '기후친화적 옷 입기' '나무 심기' '지구 친화적 투자'를 언급한다. 이런 개인적인 차원의 실천뿐 아니라 교회도 창조세계 돌봄 실현 측면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이번 조사에서 학생들은 기후환경 보호와 신앙적인 관계를 연결 짓지 못하는 경향성을 보였는데 교회/교회학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기후위기 대응을 복음과 신앙 실천의 핵심요소로서 인식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 교회 내 기후교육이 필요하다는 목회자/교사 인식(73%)이 높은 만큼, 기후환경 관련 기독교 단체와 연계하여 교회 내에서도 체계적으로 기후-신앙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출처: KDI 경제정보센터, 나라경제(09월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기후변화가 한국경제에 가져올 거대한 위험에 대한 찾을 때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2023 사망원인통계
2. 디지털 기술(AI 등)에 관한
OECD 10개국 시민들의 인식

넘버즈 칼럼

기후위기 앞에 선 그리스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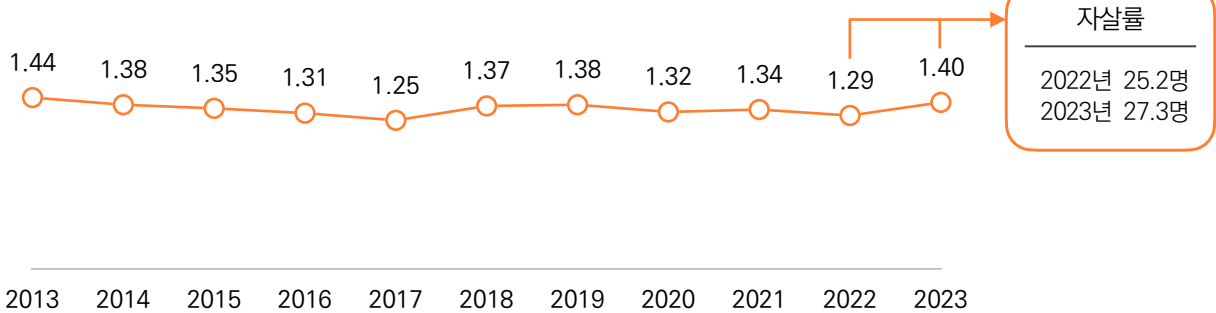


[2023 사망원인통계]

한국의 자살자수, 코로나 이후 감소하다가 2023년부터 다시 증가!

- 최근 발표한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를 통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자살자 수 추이를 살펴본다.
- 자살 사망자 수는 2013년 1.4만 명에서 이후 등락을 보이다가 2022년 약 1.3만 명까지 떨어졌는데 2023년 1.4만 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로 보면 2023년 25.2명에서 2022년 27.3명 수준으로 9%가량 높아진 것이다.

[그림] 자살 사망자 수 추이 (만 명)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2023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2024.10.04.

10대 사망원인 중 코로나19 사망률 크게 하락, 폐렴/자살은 상승!

- 상위 10순위 사망원인을 보면 2023년 기준 '암'이 인구 10만 명당 167명으로 단연 1위였고, 이어 '심장 질환(2위, 65명)', '폐렴(3위, 58명)' 등의 순이었다.
- 2022년 사망순위 3위였던 코로나19는 2023년 10위까지 하락했고, 자살 사망률은 27명으로 2022년 6위에서 1 단계 상승했다.

[표] 사망원인 순위 (인구 10만 명당 명)

순위	2022년		2023년	
	순위사망원인	사망률	사망원인	사망률
1	암	163	암	167
2	심장 질환	66	심장 질환	65
3	코로나19	61	폐렴	58
4	폐렴	52	뇌혈관 질환	47
5	뇌혈관 질환	50	자살	27
6	자살	25	알츠하이머병	22
7	알츠하이머병	23	당뇨병	22
8	당뇨병	22	고혈압성 질환	16
9	고혈압성 질환	15	패혈증	15
10	간 질환	15	코로나19	15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2023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2024.10.04.

10~30대 사망원인 1위 자살 → 젊은 층 사망원인의 40% 이상 차지!

- 연령별로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앞선 전체 사망원인과는 눈에 띄는 차이가 보인다. 10~30대까지는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났고, 40~50대는 자살이 2위, 60대는 4위를 차지했다. 특히 10~30대 젊은 층의 경우 사망원인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0% 이상이었다.

[표] 연령별 5대 사망원인 및 구성비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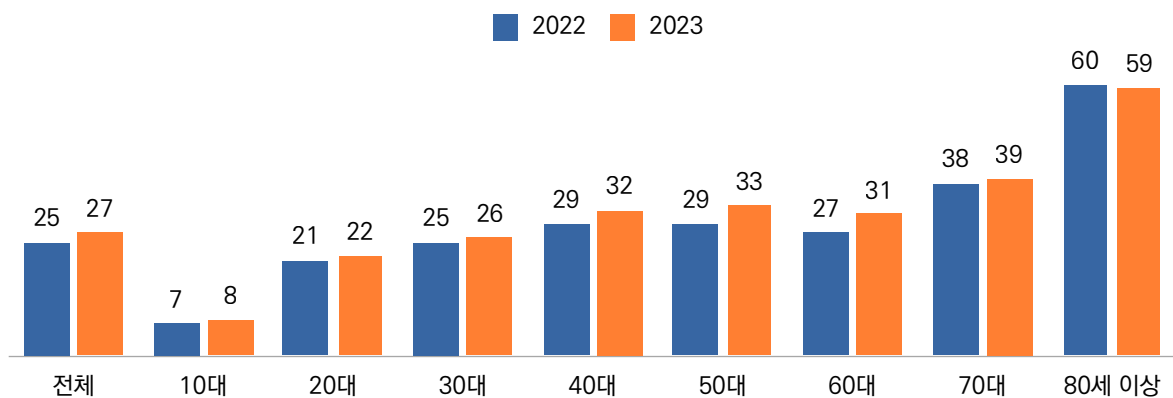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위	자살 46%	자살 53%	자살 40%	암 26%	암 34%	암 40%
2위	암 13%	암 9%	암 16%	자살 23%	자살 11%	심장 질환 8%
3위	운수사고 8%	운수사고 7%	심장 질환 6%	간 질환 8%	심장 질환 8%	뇌혈관 질환 6%
4위	심장 질환 2%	심장 질환 4%	간 질환 4%	심장 질환 7%	간 질환 8%	자살 5%
5위	가해(타살) 2%	뇌혈관 질환 2%	뇌혈관 질환 4%	뇌혈관 질환 6%	뇌혈관 질환 6%	간 질환 4%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2023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2024.10.04.

10대 자살률, 전년(2022년) 대비 10% 넘게 증가!

-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을 살펴보면 2022년 25명에서 2023년 27명으로 증가했고, 8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자살 사망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와 5060세대의 자살률은 불과 1년 전(2022년) 대비 10% 넘게(14~15%)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연령별 자살률 추이 (인구 10만 명당 명)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2023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2024.1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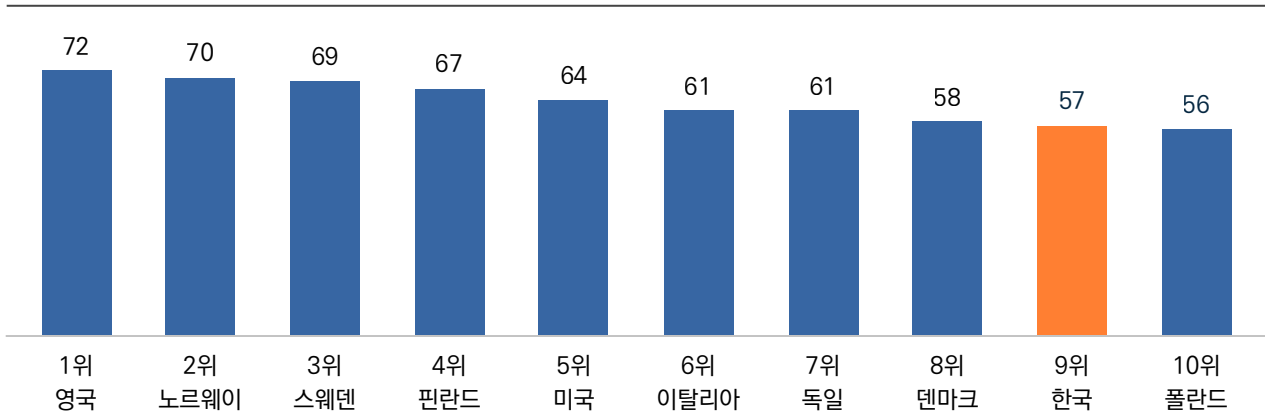


[디지털 기술(AI 등)에 관한 OECD 10개국 시민들의 인식] ‘AI 때문에 내 업무 위협받을 가능성’, OECD 10개국 중 한국 2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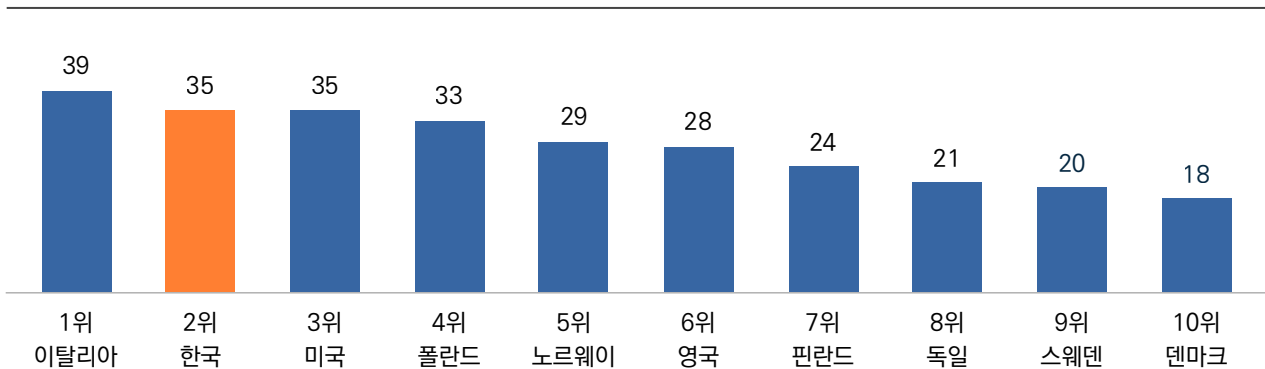
-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을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개국 시민들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AI)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한 자료가 발표되어 이를 살펴본다.
- 먼저 본인의 업무 수행에서의 디지털 기술 숙련에 대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은 결과, ‘영국’이 72%로 가장 높은 동의율을 보였고, 한국은 57%로 폴란드(56%)에 이어 10개국 중 가장 낮은 동의율을 보였다.
- 반면 ‘AI 등 신기술 때문에 자신의 업무가 위협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35%)이 이탈리아(39%)에 이어 2위였다. 한국인의 경우 자신의 AI 기술 숙련도는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한편 AI 기술이 자신의 업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크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주관적 숙련도 및 위협에 대한 인식 (OECD 10개국, ‘매우 동의+동의함’ 비율*, %)

업무 관련 본인의 디지털 기술 숙련도 충분인가?



신기술 때문에 자신의 업무가 위협받을 가능성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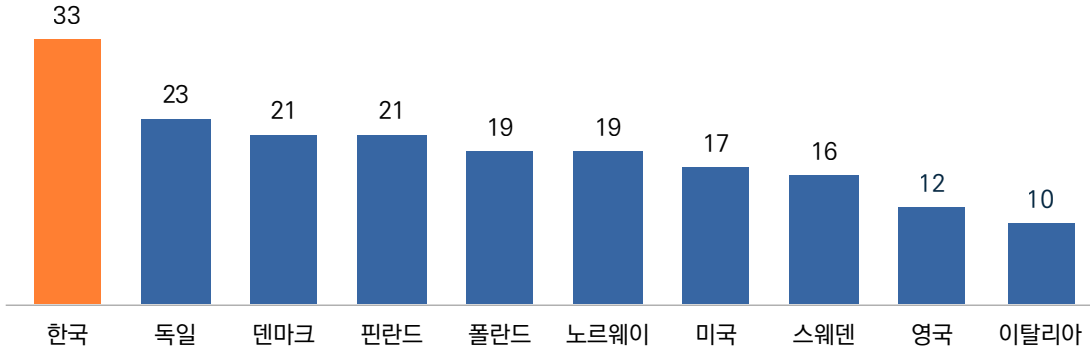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디지털전환과 인공지능(AI) 기술에 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10개국 비교, 2024.09.

*5점 척도(매우 비동의, 비동의, 비동의도 동의도 아님, 동의, 매우 동의)

그러나 AI 규제에 대해서 한국의 부정적 인식 가장 높아!

- 이번에는 AI 등 노동자를 대체하는 신기술이 기업의 수익을 높일 때 규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무규제나 최소한의 규제'에 대한 동의율, 즉 규제에 부정적인 입장은 한국이 10개국 중 1위(33%)였고, 이어 독일(23%), 덴마크(21%) 등의 순이었다.

[그림] AI 등 신기술이 기업 수익 높일 경우 '무규제나 최소한의 규제'에 대한 동의율* (OECD 10개국, %)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디지털전환과 인공지능(AI) 기술에 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10개국 비교, 2024.09.

*5점 척도(매우 강력한 규제, 강력한 규제, 중간정도의 규제, 최소한의 규제, 전혀 규제하지 않음)

기후위기 앞에 선 그리스도인

신원하 원장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창세기 1장 27-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024년 올해 여름은 정말 무더웠습니다. 7월 중순 이후로 추석까지 거의 2개월 이상 계속된 밤낮없는 무더위가 이어졌지요. 에어컨 없이는 잠을 이루기 힘든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밤에도 25도 이상을 유지한 열대야가 이어져 그야말로 밤낮없이 더위에 시달렸던 여름이었습니다. 이제 마침내 그 여름은 가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왔습니다. 저는 이 고된 여름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도 이미 체감하고 계시는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 그리고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해 교회가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할지를 오늘 읽은 본문과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 한국 기후의 아열대화 현상

우리나라의 기후가 점점 아열대 기후로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 태국 등지에서 온 노동자들이 한국 여름 날씨가 자기 나라보다 더 덥고 습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기후 변화는 지난 20~30년 동안 진행된 지구 온난화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지구 전체가 조금씩 데워졌고, 한반도의 기온과 바다의 수온도 조금씩 상승해 왔습니다. 50년 전 한반도의 기후와 오늘날 한반도의 기후가 다르다는 말이지요.

이런 기후 변화는 미래의 생태계와 인간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재난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경고합니다. 이미 피해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올여름만 해도 농어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축산 농가에서 사육하는 닭과 돼지 등 많은 가축이 집단으로 폐사했고, 수온이 26도 이상 오른 날이 일주일 이상 계속되어 서해 바다 양식 어장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큰 태풍 피해가 없어 풍년이 예상되었는데, 추석 연휴가 끝나는 시점에 3~400mm의 폭우가 집중적으로 퍼부는 경남과 전남의 일부 지역에는 벼농사와 배추농사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가을 폭우로 발생한 재해였습니다.

현재 기후변화로 곳곳에서 기후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생태와 환경,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여러 문제들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지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도록 주신 삶의 터전이며, 피조물들이 함께 살아가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하 생략)

*칼럼 전문은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koreanchristianethics.com/%EC%A0%80%EC%9E%A5%EC%86%8C/2120>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전국지표조사\(4개 주요 조사기관\) 리포트 제132호\(2024년 10월 2주\)](#)

- 국정운영 평가, 성장과 분배 인식, 대통령 거부 3법 국회 재표결 부결

["영구 경제 제재 받아도 韓 핵무장"…콘크리트 지지층 37%](#)

중앙일보_2024.10.10.

사회 일반

["쇼츠' 대신 책을"…한강 노벨상 수상, 독서열기로 이어질까](#)

연합뉴스_2024.10.12.

["1만5000원에 춤추고 떴창"…아재 놀이터에 2030女 점령, 왜](#)

중앙일보_2024.10.12.

["숯폼만 봤더니 집중력 47초로 뚝"…자극적 콘텐츠 탐닉 악순환](#)

서울경제_2024.10.7.

["통일 필요하지 않다는 여론 역대 최고"…2030 부정적 인식 강해"](#)

연합뉴스_2024.10.2.

["싱가포르인 3명 중 2명 한국에 긍정적"…손흥민·BTS 기여"](#)

연합뉴스_2024.10.6.

["한국은 봉?"…넷플릭스 중도해지 안되고 유튜브 요금제 차별](#)

연합뉴스_2024.10.8.

['키크는주사'로 잘못 알려진 성장호르몬제제…중대 부작용 급증](#)

연합뉴스_2024.10.10.

[학부모 극성 등에 작년 담임교사 203명 교체…62% '초등교사'](#)

연합뉴스_2024.10.9.

[돈 풀며 '인구대책' 나선 부산…빈집 실태조사 결과는 제각각](#)

중앙일보_2024.10.11.

["자녀 갖고싶다" 20대 후반 여성 34→48%…확 늘어난 이유](#)

중앙일보_2024.10.14.

청년 · 청소년

["죽보? 죽발보쌌세티!" "시발점? 욕이잖아!"…요즘 학생들 문해력](#)

중앙일보_2024.10.7.

[도박 빠진 10대, 5년새 2배 늘어](#)

조선일보_2024.10.14.

[디지털 기기 붙들고 사는 아이들... 5년 만에 거북목 등 호소 학생 8만명 증가](#)

조선일보_2024.10.12.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경제 · 기업

[어닝 쇼크에 '사과문' 낸 삼성전자, '세계 최고 직장 1위'도 빼앗겼다](#)

문화일보_2024.10.10.

[작년 폐업 98만명 역대 최대... 실업자된 자영업자 23% 증가](#)

동아일보_2024.7.16.

[직장인들에게 '이상적 리더십'이 뭐냐고 물었더니](#)

조선일보_2024.10.10.

[직장인 4명 중 1명은 월 400만원 이상 받는다...역대 최고치](#)

조선일보_2024.10.9.

[3050 직장인 연금저축 평균 적립액 3295만원](#)

조선일보_2024.10.11.

국제 · 환경

[전 세계 기아 수준, 136년간 높은 수준 유지 전망, 충격적인 새 연구 결과](#)

중앙일보_2024.10.10.

[가자전쟁 1년...매일 119명꼴 사망, 이중 40%가 어린이였다](#)

중앙일보_2024.10.7.

건강

[올해 '국내 당뇨병 현황' 키워드 3개는? '비만'·'청년'·'노인'](#)

헬스조선_2024.10.10.

[작은 일에도 "인생 끝장"... 걱정의 늪 탈출하기](#)

동아일보_2024.10.5.

기독교 · 종교

[지상명령 수행 위해 선교사 케어 반드시 진행돼야](#)

한국기독교공보_2024.10.4.

[종교 있는 美 성인 49% "대선 투표 안 할 것"](#)

국민일보_2024.10.15.

후원

후원 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구파발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광주무돌교회, 광주벤엘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노량진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평강교회, 대덕교회, 대전도안교회, 대전대흥침례교회, 대전선창교회, 대전은평교회, 대신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춘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라이트하우스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범어교회, 빛과소금교회, 빛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울홍성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학교, 수원중앙침례교회, 수원화산교회, 순복음대구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제일장로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이리신광교회, 일산광림교회, 잠실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중동교회,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목동),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충현교회, 창동영광교회, 창일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밭제일교회, 한소망교회, 할렐루야교회, 해전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후원 기관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시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안미션, 서대문ESF, 성서유니온,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교육리연구원, 한국성서유니온, 한국IFCJ 가정의힘, 한목회, (재)한빛누리, CBMC광주지식포럼, CBMC여수비즈니스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후원 기업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메가리서치, (주)소프트자이온, (주)시스코프, 신대종합모터스, (주)참튼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하은커넥터(주) (가나다 순)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 후원 방법 (국내)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 후원 방법 (해외) <

외국에서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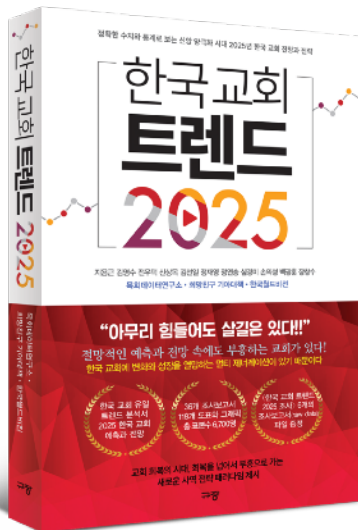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르연구소, (사)아시아미션,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책 구입 안내

목회데이터연구소는 한국 교회 최초의 트렌드 분석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3'를 출간한 이후,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 '한국교회 트렌드 2025'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책 소개 동영상

책 구입 안내

목회데이터연구소

2025 노년목회 정책세미나

저희 연구소와 협력기관인 '유바디교육목회연구소'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4년 10월 17일(목) 10:00~17:00
- 장 소 : 영락교회 50주년기념관 503호
- 대 상 : 담임목사, 교역자 및 교인 누구나
- 참가비 : 6만원
- 등 록 : 신청 링크 및 QR코드로 신청
- 문 의 : 유바디교육목회연구소 010-7613-2401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유바디교육목회연구소

2025 노년목회 정책세미나

초고령사회가 시작되는 2025년, 이제는 노년목회가 필수인 시대입니다.
최신 노년 트렌드 분석과 기독교교육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노년목회 프로그램 "공구는 3억"을 소개합니다.



신청 링크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